



고대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수상

종합병원부문 대상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글로벌 외과허브로서의 역할과 고위험 장기이식의 저변확대 등 생명의 희망나눔활동 인정받아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김동식)가 '2015년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을 수상했다.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9월 2일 오전 11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2015년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부문 대상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혈액형 불일치 장기이식, 타 병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장기의 이식 등 고위험 환자의 장기이식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장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고 환자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장기이식센터장 김동식 교수는 "이식대기환자에 비해, 생체장기기증은 물론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매우 적은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기증된 장기 단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적절한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과 의료진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아무리 어렵고 대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보이는 이식대기환자에게 포기 대신 새 생명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보건산업 발전에 앞장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한편 이번 수상자는 전국 730여 개의 종합병원과 특화병원, 한방병원, 제약회사 등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 축적과 함께 정부 및 의료관련협회, 대학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와 소비자 대상 브랜드 인지도, 고객만족도, 신뢰도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2면에서 계속됩니다.

高大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박차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우경)이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의 50억원 지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삼성SDS와 함께 본격 시작한 차세대 EMR 구축사업이 내년 6월 오픈 및 적용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구축사업에 고려중앙학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차세대 EMR 개발사업비로만 50억원을 지원했다. 재단은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과거 처방전달시스템(OCS) 구축부터 화정연구동 건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시스템과 특성화 진료 및 연구 인프라,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모두 겸비한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10년의 편리함을 만들겠다'는 사업목표로 시작한 차세대 전자무기록(EMR)사업은 환자진료를 위한 모든 기록과 자료들을 표준화하고 DB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초의학 연구용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와 병원 경영 효율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료원 역점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의료원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사전 컨설팅에서부터 구축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들을 집중 투입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에는 서식 생성 절차의 일환으로 분석을 통한 표준화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취합된 서식을 통해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편리한 EMR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빠르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 기록 축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발전 의학발전기금기부

15.08.27	공평자	₩ 1,000,000
15.09.01	권혁필, 전영인	₩ 30,000,000
15.09.02	의과대학 23회 졸업50주년	₩ 100,000,000
15.09.07	지혜란	₩ 1,500,000
15.09.09	송파재단	₩ 6,207,000
15.09.10	박영순	₩ 3,500,000
15.09.10	고려대학교 교우회	₩ 4,000,000
15.09.16	김기섭	₩ 10,000,000
15.09.22	임순광	₩ 5,000,000
15.09.23	나홍식	₩ 1,000,000
15.10.01	이순영	₩ 3,000,000

미주지역 기부방법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의무자께서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DRESS 15 Autumn Hill Road, Princeton, New Jersey 08540, United States

EMAIL info@ifku.net (Attn : Wan-Mo Kang, Chairman 1-609-895-6638

wkang@foxrothschild.com)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홈페이지 http://www.ifku.net



“하나의 장기도 버려지지 않게 노력... 해외서도 찾아와”

이식전문팀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

고난도 이식 연달아 성공하는 정교한 기술로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수상의 영광 안아

장기이식은 모든 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의술이 필요한 분야다. 수술 시간이 다른 외과 수술보다 길고, 출혈도 많은 편이다. 새로운 장기와 기존의 혈관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작업은 정교한 기술을 요한다. 새 장기를 이식했을 때의 면역 거부 반응 등 부작용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주의 요소 중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외과와 내과를 비롯해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인 협진도 필수다. 그 때문에 모든 외과 수술의 총체인 장기이식을 '신의 수술'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위험 장기이식 분야도 성장

고려대 안암병원은 장기이식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병원이다. 간, 신장, 췌장 등 각 분야 드림팀 의료진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해외환자들까지 장기이식을 위해 병원을 찾고 있다. 2013년 고려대병원은 국내 외국인 신장이식 건수 1위, 간이식 건수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동식 장기이식센터장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매우 적고, 이식 대기자는 많은 가운데, 단 하나의 장기도 버려지지 않고 환자들에게 이식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장기이식이 가장 고도화된 분야는 간, 신장, 심장 등이다. 김동식 유명동 교수로 이뤄진 간 이식팀, 정철웅 전홍만 교수가 활약하고 있는 신장·췌장이식팀, 손호성 정재승 교수가 짝을 이룬 심장이식팀 등은 고려대병원의 장기이식 드림팀으로 불린다.

혈액형 안 맞아도 장기이식 성공

간이식팀의 성장 동력은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이다.

간이식팀은 간담체외과, 소화기내과, 마취과를 비롯한 관련 임상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유기적인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진이 이뤄지면서 이식 수술 시점 판단, 적절한 이식 수술법 고안, 수술 후 면역 거부 최소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향상됐다.

대표적으로 무수혈 간이식 수술의 성공도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 이식으로 인한 면역 거부 부작용 우려가 높은 이식 수술의 경우, 수혈을 받으면 부작용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따라서 수술 중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수혈 수술이 고안됐다.

간암 환자의 종양을 제거한 이후에 실시하는 이식술 등 고위험 장기이식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간을 찾아 적합한 환자를 찾는 일도 늘고 있다. 또 혈액형 부적합 환자에게도 간이식에 성공하기도 했다.

해외 환자도 찾는 신장·췌장 이식

신장 췌장 분야는 최고 수준의 이식 기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장 췌장 동시이식 등 고난도의 이식을 성공해 국내외 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심장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차례 부정맥을 동반한 심정지로 고비를 넘긴 환자, 울혈성심부전으로 15년 가까이 고생했던 환자, 만성심부전 환자 등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심장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한 번 환자는 영원한 환자

고대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이식을 받은 환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6년째 '장기이식인의 날'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올해 4월 열린 장기이식인의 날 행사에서는 이식대기환자를 위해 '장기기증 활성화-생명나눔 여섯번째 이야기' 를 주제로 진행돼 약 2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기이식인과 가족들은 의료진과 함께 걸으며 진료실에서는 나누지 못한 궁금증과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김 센터장은 “장기이식 후에는 의학적 도움뿐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식인과 의료진은 동반자” 라며 “한 번 우리 병원과 연을 맺은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진료에 나서고 있다” 라고 말했다.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호랑이와 작은 날갯짓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나비효과를 합성한 '호랑나비효과' 라는 제목으로 장기기증서약캠페인을 펼쳐왔다. 고려대 학생들과 이식을 받고 새 삶을 얻은 환자들이 주축이 돼 장기기증의 가치를 전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었다. 



내 심장이 외치는 이상 신호에 귀 기울여라

불규칙적인 맥박, 무질서하게 부르르 떠는 난치성 질환 심방세동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3차원 영상법 이용한 전극도자절제술로 95% 완치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다 뇌경색의 원인인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50대 남성 안 모 씨. 심방세동에 동반된 빈맥-서맥 증후군으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과 함께 통증을 호소한 안 씨는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한 뒤 항응고제 약물치료에도 심방세동은 지속되었다. 이에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옮긴 그는 심혈관센터 김영훈 교수팀에게 심방세동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술받았고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분을 성공적으로 절제했다. 시술 3개월 뒤 항부정맥제, 항응고제를 모두 끊었고, 현재까지도 심방세동 재발 없이 무증상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80만명이 갖고 있고, 65세 이상에서는 5%, 80세 이상에서는 10% 가량의 발병율로 노령화에 따른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심방세동.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이지만 치료가 어려워 난치성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방 전체가 균일하게 수축하지 않고 심방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고 가늘게 부르르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심방세동은 고혈압, 심장병,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음주 등이 주요 원인이며 증상으로는 불규칙적인 맥박, 어지럽고, 답답하거나 두근거림, 졸도, 중풍 등이 그 특징이다. 특히,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에 비해 약 5배 뇌졸중 위험이 높으며, 심장기능을 저하시켜 심부전 같은 심장병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은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심방세동은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연히 신체 검사 중 심전도 항목에서 부정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맥이 고르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아는 경우가 많다. 자각증상이 심하지 않은 게 특징인데 이는 심장이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인 심방세동에 자가 적응을 하기 때문이다. 심방세동이 최근 1~2년 이내에 시작된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고 덜컥덜컥거리며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으로 흉부 압박감, 식은 땀 또는 어찝한 느낌 등 다양한 증상과 불쾌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부정맥 명의 김영훈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500여명의 심방세동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 특히 2500여례 시술 중 해당 시술로 인한 사망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에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의 권위와 실력이 드러난다.

부정맥센터 김영훈, 최종일, 심재민 교수가 진행하는 3차원 영상법을 이용한 전극도자 절제술은 3차원 다이나믹 컬러 영상을 통해 각종 전기적 신호를 기록해 좌심방과 폐정맥의 전기적·형태적인 연결 양상과 좌심방과 폐정맥의 전기적 연결 양상과 형태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빈맥의 발생부위를 정확히 진단 후 이 부위에 '전극도자' 라는 전선과 같은 가느다란 기구를 위치시켜 고주파 열에너지를 투여해 발생부위를 절제하는 것이다.

김영훈 교수는 "초기에 치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증상을 알게 된 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 90~95%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성공률이 20%씩 떨어진다. 따라서 평소 불규칙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고르지 않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 "부정맥은 다양한 심장병의 처음이면서, 마지막 증상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상 심장에서 일시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났다가 저절로 소실되기도 하는,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도 말한다."며, "부정맥은 정확한 실제 파악만 된다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내가 내 심장과 소통하게 해주는 귀중한 연결 고리이다." 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이 9월 11일 '심방세동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행사에는 심방세동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심방세동 최신지견 토론회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왜 나에게 심방세동이 생겼을까?(이광노 교수) ▲증상이 없는데도 치료를 해야 되나?(노승영 교수)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김동혁 교수) ▲새로운 항응고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안진희 교수) ▲시술 후 왜 재발할까? 시술 전후 유의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은?(심재민 교수) 등 심방세동 증상 치료와 약물 등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강좌로 구성됐다. 특히 심방세동은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에 뇌졸중 발생 예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참석자들이 김영훈 병원장에게 직접 질문하여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훈 병원장은 한 명 한 명 환자를 기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환자에게 정확한 조언을 건넸고, 개인에게 맞는 카페인 섭취, 운동법 등 평소 주의해야 할 점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병원장은 "병을 이기려면 병을 잘 알고 친해져야 한다. 의료진과 친해져 증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항상 체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는 것이 의료진들의 가장 큰 보람이고 또 비전이다. 심방세동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여러분이 이번 강좌를 통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말했다.

2부에서는 심방세동 현황가 치료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학병원과 개원의 의료진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두영철 원장(두영철 내과), 이호준 원장 (더베스트 내과)를 좌장으로 '증례를 중심으로 배우는 심방세동의 치료' 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고려대 이대인 교수와 김진석 교수, 세종병원의 박상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항부정맥제와 새로운 항응고제, 전극도자 절제술 등 심방세동의 개선된 치료 시술과 약물 치료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했다. 다양한 발표가 이어지며 각 병원에서 있었던 사례를 전문가들이 함께 토의하면서 서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쳤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방세동의 날' 성료



청명한 가을날씨, 주말 등산 계획 하셨나요?

등산의 계절 가을이 왔다. 아직 단풍이 들기 전이지만 선선하고 청명한 날씨에 주말 등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문 지식이나 도구가 없이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등산은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더 즐겁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등산 시에는 땀으로 인해 수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과일이나 야채, 적당량의 물, 열량보충을 위한 초콜릿 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 밤낮 기온차가 심한 요즘에는 등산 중 흘린 땀으로 인해 체온을 빼앗겨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겹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등산스틱을 사용해서 관절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으며 산에 오를 때 보다 내려올 때가 관절에 가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무리해서 뛰어내려오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은 등산 시 특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산행 중 가슴부위가 답답하거나 통증, 호흡곤란증세 등이 느껴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는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조건 정상에 빠르게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산을 감상하며 여유를 가지고 등산하는 것이 등산의 유산소 운동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등산 후 함께 산에 오른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 후 즉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적은 양에도 더 쉽게 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술의 칼로리가 꽤 높으므로 다이어트를 위해 등산을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험한 산이나 먼 코스를 잡지 말고 가깝고 낮은 산을 먼저 가고 본인에 체력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 하는 것이 건강한 등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건강프로젝트: 생생건강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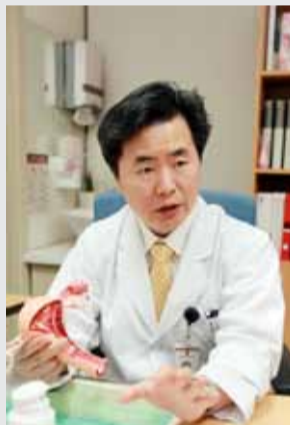
구강위생관리 소홀하면 폐렴 위험높아져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전신무력감,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폐렴은 세균 및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약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강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음식물이나 타액, 치태가 혼합된 구강 내 이물질이 기도과 폐로 들어가면 구강 내 존재하는 세균과 이물질로 인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물질이 기도나 폐로 들어가면 기침을 하거나 삼모작용, 즉각적인 면역반응 등으로 기도를 보호해 쉽게 폐렴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연령이 증가하고 면역기능이 약화된 노령에서는 이물질에 즉각적인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령 뿐 아니라 연하장애를 동반하는 질환인 인지장애,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구강위생관리와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 수분을 유지하고 혀와 입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강상태가 필수입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 류재준 교수**



고위험 임신부, 주기적인 혈압체크 필수

고위험 임신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임신부의 연령입니다. 20대에 출산하는 여성보다 30대 이후에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각종 혈관질환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관질환은 고혈압을 비롯해서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등을 말하며, 임신으로 인해 이런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그 위험이 20대 보다 2~4배까지 높아지게 되며, 증세가 심할 경우 신장이나 태반에서 혈관 수축이 이루어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자궁으로 흐르는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만약 자궁의 혈액량이 감소하면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아기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결핍되어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체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혈압에 따른 다른 질병의 확률 역시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 조절과 혈압체크는 필수입니다.

특히 필수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사와 영양이 고령의 산모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주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수입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심장을 멈추는 부정맥, 서맥과 빈맥 그리고 불규칙맥

부정맥이란 한마디로 심장박동 (heart rhythm)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흐트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분당 60-100번, 하루 약 10 만번,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서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되는 것이 부정맥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맥이 지나치게 빠른 것을 빈맥, 느린 것을 서맥이라고 하며 맥박수는 분당 60-100번으로 정상이지만 불규칙하게 될 때 불규칙 맥 또는 기외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내에는 전기 회로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전기가 흐르면서 규칙적으로 박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 회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신호가 빠르게 나와 안정상태에서도 100회 이상을 뛰고 있다면 빈맥이라고 합니다. 회로 중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전기 흐름이 차단되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게 되며 분당 60회 미만으로 뛰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것을 서맥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상 전기 회로 이외의 다른 부위에서 전기 신호가 간혹 나와 심장이 예정보다 한 박자 빨리 뛰게 되면 조기 박동 또는 기외 수축이라 합니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심재민 교수



김영훈 병원장,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서 'Heart to Heart' 강연

지난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보건 의료교육재단 창립 기념식 및 축하연에서 김영훈 안암병원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Heart to Heart- 심장의사, 내 안에 또 다른 심장을 찾아서'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김영훈 병원장은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부정맥 환자의 완치를 위한 시술을 할 때 가장 가슴이 뛰었고,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사명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영훈 병원장이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보건의료교육을 매개로 남북한 두 이방인이 소통하고자 설립된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앞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통일을 준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고대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 원내세미나 개최

고려대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센터장 박성수)는 8월 25일 오후 4시 30분 의과대학 본관 최덕경 강의실에서 '2015년 비만대사센터 원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비만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장관외과,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료진들은 비만 치료, 관리 등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의 발전을 도모했다.

1부에서는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를 좌장으로 '소아 및 성인 비만치료의 핵심 식이 및 약물 요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소아 비만 환자 관련 개요 및 현재 관심사 (소아청소년과 이윤 교수) ▲비만대사센터에서의 영양상담 및 식이처방에 대하여 (허주미 영양사) ▲비만약물 사용 업데이트(가정외과 김양현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지면서 현재 소아 청소년기의 비만이 증가하는 양상과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비만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영양관리 및 약물 치료까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수 교수, 대한생물정신의학회서 공로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수 교수가 지난 9월 4일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 생물정신의학 분야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 동안 정신의학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며 국내 정신의학 분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이민수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우울증 치료에서의 약물유전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여러 의료진, 연구자들과 최신지견을 나눴다.

한편, 이민수 교수는 현재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 우울증센터 소장, 보건복지부 지정 정신작용 약물 유전체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정신의학회(WPA) 동북아시아지역 대표로 재선출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와 MOU체결

지난 8월 25일 오후 4시 30분에 재단회의실에서 대한민국 ROTC 중앙회(회장 최용도)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훈 원장과 최용도 회장을 비롯한 안암병원 주요인사 및 ROTC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ROTC 중앙회 회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큰 골자로 하여 상호이해와 발전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원장은 "고대병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왔으며, 18만 5천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ROTC 중앙회와 함께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도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핵의학과 최재걸 교수,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핵의학과 최재걸 교수가 8월 21일 오전 9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 8회 세계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재걸 교수는 병원의 검사분야의 질관리를 표준화하는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제도인 ISO 15189의 제도 도입에 힘써 메디컬 기관인정분야 선진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5년 세계인정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 시험인증산업발전에 기여가 큰 단체 및 개인을 포상했다.



서울성북경찰서와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성북경찰서(서장 이인상)와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에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문화의 차이와 심리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주민들에게 실질적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성북경찰서가 뜻을 모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영훈 원장은 "고대병원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병원의 문턱이 높아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로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단순한 신체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병원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전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또 한 번 우수성을 인정받다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또 한 번 우수성을 인정받다

아시아 최다, 최초, 현재 유일한, 독보적인. 이 수식어는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의 성과와 기록에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 들이다. 새로운 수술법과 치료법, 연구성과로 국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의료진들이 최근 또 한 번 국제적으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강석호 교수팀, 국제 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강석호 교수팀이 제 12차 아시아-태평양 내시경복강경수술 학술회(ELSA 2015 - The 12th Asia-Pacific Congress of Endoscopic and Laparoscopic Surgery) 에서 최우수논문상 (Best Scientific Awards)을 수상했다.

강석호 교수팀 (편종현, 김형근, 조석, 강성구, 강석호 교수) 은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ELSA 2015 에서 'Robot-Assisted Radical Cystectomy with Total In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 Comparative analysis with Ex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로봇이용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총체내요로전환술: 체외요로전환술과의 비교분석)'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최우수논문상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태평양 다수 국가들이 학회에 제출한 250여개 논문 중 최고의 논문 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논문은 방광암 수술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로봇수술 을 개발해, 모든 단계의 방광암 수술을 로봇으로 실시하는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총체내요로전환술' 의 우수성을 규명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 총체내 요로전환술을 시행함으로써 출혈량 감소 및 낮은 수술률, 그리고 수술 후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고했다.

침윤성 방광암 치료를 위한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방광을 제거한 후 요로전환술이 필수적인데, 기술적인 난이도 및 긴 수술 시간으로 인해 로봇 이용 수술 시에도 개복수술을 통한 체외요 로전환술로 진행돼왔다.

강석호 교수는 "총체내요로전환술은 장(腸)이 체외로 노출되 지 않아 수분손실이 적고, 낮은 합병증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방광암 전단계 로봇수술은 최소침습수술 로써 고령이 대부분인 방광암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법" 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석호 교수는 지난 2007년 말 처음으로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작한 이래 아시아 최다수술기록을 보유하고 있 으며, 총체내 요로전환술을 이용한 방광암 전단계 로봇수술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후 현재 로봇방광암 수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강성구 교수, 발기력 복원기간 예측 모델 개발

비뇨기과 강성구 교수가 전립선암 로봇수술 시행 후 발기력 복원까지의 기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시행 후 발기력 복원까지의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환자의 나이, 수술 전 발기력 점수 그리고 신경보존술이다. 강성구 교수는 기존에 신경 보존술을 표현하는 "에스 or 노 (All or None)" 표시방식이 최신 트렌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착안해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세계적 대가인 플로리다 대학 파텔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신경보존정도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발기력 복원까지의 기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발기력 복원까지의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환자의 나이, 술전 발기력 점수, 신경 보존의 등급이다. 이번 모델을 통해 위 3가지 요소를 공식화하여 자동으로 발기력 복원까지의 예측 기간을 얻게 되는 것으로 환자 면담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구 교수는 "암의 완전 절제, 요실금 회복, 발기력 복원은 전립선암 로봇수술 진행 후 꼭 잡아야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이 중 발기력 복원은 꼭 해결해야하는 숙제인데, 이번 모델로 로봇수술 후에 환자들의 발기력 복원이 얼마나 되는지, 복원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 궁금증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희망을 전합니다

희망우체통에 소망을 담은 편지를 넣어주시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1년 후 배송해 드립니다.

질병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여러분께
디딤돌이 되는 **희망우체통**입니다.



희망으로
꿈을 이어갑니다

희망으로
질병과
겨웁니다

희망을
나눕니다

안암동 편지

* 희망우체통은 안암병원 8층 86병동에 있습니다.

진료예약 1577-0083